

## 대한간호학회지 논문 심사의 발전 방향

김혜원<sup>1)</sup> · 정명실<sup>2)</sup> · 박정숙<sup>3)</sup> · 서연옥<sup>4)</sup> · 석민현<sup>5)</sup> · 신현숙<sup>6)</sup> · 양진향<sup>7)</sup> · 장희정<sup>8)</sup> · 정면숙<sup>9)</sup>

### 서론

대한간호학회지는 올해로 36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국내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간호학 전문 학술지이다. 간호학의 변화와 발전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이 바로 간호연구라 할 때, 대한간호학회지의 논문 수준은 바로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학의 발전된 모습 또는 부족한 부분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대한간호학회지의 논문 수준은 과거에 비하여 양적, 질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거듭하였기에, 게재된 논문은 많은 간호학과 인접 분야의 연구자에게 간호학 연구의 큰 흐름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얻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간호학회지는 이제 당당한 국제적 간호학술지로 도약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 속에서 변화·발전하기 위해 더 한층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간호학회지 논문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일이다. 이에 많은 연구논문 가운데 게재 필요성이 큰 논문을 구별하는 일, 그리고 심사과정을 통하여 논문의 완성도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본 학회지의 논문 심사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 간호학 논문 심사위원들이 생각하는 대한간호학회지의 성격을 규정하고 국제적 학술지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

한 요인들을 확인한다.

-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논문 심사 전 과정에 대한 다각적 평가를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 게재 판정 결정조건, 심사 양식서 평가, 객관적 논문 평가를 위한 의견 및 세부적 논문 평가과정의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대해 확인한다.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논문심사과정의 장 단 점을 파악하고 향후 바람직한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논문심사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한국간호과학회 이사 및 대한간호학회지논문 심사위원, 그리고 산하 7개 분과학회의 논문심사 위원들이다. 자료수집과정은 1차로 2006년 8월 23일 하계 학회 출판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한 논문 심사위원들 중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즉시 회수하였다. 2차로 8월 23일에서 9월 30일까지 이메일을 통하여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한 연구 목적

### 주요어 : 논문 심사, 평가

- 1) 관동대학교 간호학과, 2)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3)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4)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5) 포천중문의과대학교 간호학부  
6)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7)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8) 한림대학교 간호학부, 9)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투고일: 2007년 3월 15일 심사완료일: 2007년 3 31일

을 설명하고, 참여를 수락한 위원들로부터 이 메일을 통해 자료를 회수하였다. 결과적으로 연구 참여를 수락하고 사전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에 답한 논문심사위원은 총 75명이었다. 설문에 답하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 설문 내용

설문지 구성은 (1)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교수경력, 소속 학회, 논문심사위원 활동 학회, 심사영역을 질문하였다. (2) 대한간호학회지의 특성에 관한 질문으로 성격규명, 국제적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조건을 질문하였다. (3) 논문 심사과정 분석에서는 논문심사에서의 우선순위, 게재 판정을 내리는 의사결정 요인 및 현재 심사 양식서의 만족도 및 문제점을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4) 객관적 논문 평가에 대한 의견, 세부적 논문 평가 기준의 중요도를 질문하였다.

### 연구 결과

#### 논문 심사위원의 일반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75명의 연령은 최소 34세에서 최대 61세로 평균 47.63±6.34세였고 교수경력은 최소 3년에서 최대 37년으로 평균 17.37±9.05년으로 나타났다. 소속 전공학회로는 성인간호학회 18명, 여성건강/모성간호학회 14명, 아동간호학회 11명, 간호행정학회 11명, 지역사회간호학회 8명, 정신간호학회 7명, 그리고 기본간호학회 6명이었다. 응답한 심사위원 중에서 현재 한국간호과학회의 이사, 출판위원으로서 논문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는 39명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하였고, 36명은 소속 전공 학회 심사위원 이었다. 응답자 중 소속 전공 학회에서도 논문심사를 하고 있는 경우는 31명의 41.3%로 성인간호학회 소속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논문 심사위원으로서 논문심사 영역에 대한 결과이다. 먼저 대한간호학회지 논문 심사위원으로서 현재 또는 과거에 주로 심사한 영역은 응답자 48명 중에서 단독 심사영역으로는 양적 연구가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질적 연구가 3명으로 나타났다. 중복 응답을 고려하였을 때 종설과 양적연구는 2명, 양적과 질적 연구는 1명, 양적연구와 개념분석은 1명, 양적, 질적 연구와 개념분석은 1명, 그리고 질적 연구와 개념분석은 1명으로 나타났다. 다음 소속 전공 학회의 논문 심사 영역에서는 응답자 72명 중에서 양적연구 55명, 종설 1명, 질적 연구 2명으로 답하였고, 나머지 14명은 중복 응답자로 종설, 양적, 질적, 개념 분석과 Q 방법론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otal N=75)

Characteristics	Number	Percent
Age	75	
Education career	75	
Major / sub-academy		
Adult	18	24.0
Fundamental	6	8.0
Maternity & women health	14	18.7
Child	11	14.7
Psychiatry	7	9.3
Nsg. Administration	11	14.7
Community	8	10.7
Review board(multiple response)		
Korean academy of nursing	39	52.0
Adult	13	17.3
Fundamental	8	10.7
Maternity & women's health	14	18.7
Child	9	9.3
Psychiatry	2	2.6
Nursing administration	8	10.7
Community	6	8.0
Evaluation areas as a reviewer in KAN(n=48)		
Review article(1)	0	0.0
Quantitative(2)	40	83.3
Qualitative(3)	2	4.3
Concept analysis(4)	0	0.0
Q methodology(5)	0	0.0
(1) + (2)	2	4.2
(2) + (3)	1	2.1
(2) + (4)	1	2.1
(3) + (4)	1	2.1
(2) + (3) + (4)	1	2.1
Evaluation area as a reviewer in sub-academy (n=72)		
Review article(1)	1	1.4
Quantitative(2)	55	76.4
Qualitative(3)	2	2.8
Concept analysis(4)	0	0.0
Q methodology(5)	0	0.0
(1) + (2)	1	1.4
(2) + (3)	5	6.9
(2) + (4)	1	1.4
(1) + (2) + (3)	2	2.8
(1) + (2) + (4)	1	1.4
(2) + (3) + (4)	2	2.8
(1) + (2) + (3) + (4)	1	1.4
(2) + (3) + (4) + (5)	1	1.4

#### 대한간호학회지의 특성에 관한 의견

대한간호학회지의 성격 규정에 대하여 타 간호학 분과 학술지와 성격이 차별화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12명(16%),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우는 62명(82.7%)이었고, 현재 대한간호학회지의 게재 성격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8명(24.0%), 그렇지 않은 경우는 56명(74.7%)이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evaluation of review process of article among the subjects (Total N=75)

Characteristics	Categories or priority at first	Number	Percent
Uniqueness of journal	Yes	12	16.0
	No	62	82.7
	Missing	1	1.3
Clear in color of journal	Yes	18	24.0
	No	56	74.7
	Missing	1	1.3
To growth toward an international journal	Excellence in nursing(n=55)	29	38.7
	Creativeness(n=65)	40	53.3
	Transact with other discipline(n=51)	2	2.7
	Uniqueness of korean nursing(n=54)	5	6.7
	Etc	1	1.3
Importances in research article review	Summative subjective opinion(n=68)	21	28.0
	Descriptive evaluation in specific area(n=74)	45	60.0
	Total score based on evaluation type(n=68)	11	14.7
Determinants in decision making of an acceptance	Objective sum score based on checklist	4	5.3
	Checklist +subjective evaluation	63	84.0
	Subjective comprehensive evaluation	8	10.7
What the format would be satisfied if it is changed (n=73)	Summative scores from detailed checklist	22	29.3
	Specified but descriptive subjective evaluation	21	28.0
	Broad categories with subjective opinion	30	40.0

학회지가 국제적 학술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4가지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인한 결과 제 1순위로 대답한 순서는 논문의 창의성 요인 40명(53.3%), 간호의 우수성 29명(38.7%), 한국 간호의 차별성 5명(6.7%), 인접 학문과의 교류 확대 2명(2.7%)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제2 순위로 대답한 순서를 보면 논문의 창의성 22명(29.3%), 그 다음으로 간호의 우수성과 한국 간호의 차별성이 각각 16명씩(21.3%)으로 동수였다 <Table 2>.

**논문 심사과정 분석 : 우선순위, 게재 판정, 심사양식서의 평가**

심사위원들이 논문심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을 3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제 1순위로 응답한 순서는 영역 별 지적 및 의견 진술이 45명(60.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총평으로서의 주관적 견해 21명(28%), 그 다음이 5가지 양식에 의한 심사서의 총점 11명(14.7%)의 순이었다.

심사위원들이 심사과정에서 게재 판정을 결정하는 조건의 우선순위로는 세부적 객관적 지표와 함께 논문 전반에 걸친 주관적 평가를 고려한다가 63명(84.0%), 체크리스트에 관계없이 주관적인 종합적 평가에 의해 결정한다 8명(10.7%), 체크

리스트에 의한 객관적 지표에 의한 결과로 판정한다 4명(5.3%)의 순서였다.

현재 논문 심사서 양식을 바꾼다고 하었을 때 심사위원이 원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전체 중 73명이 응답하였는데, 심사항목을 대항목(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토의, 투고형식의 적절성)으로 분류하여 주관적 견해를 기술하고 게재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 의견이 30명(40.0%)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전 영역을 세부항목 체크리스트로 계산하여 총점으로 판정하는 의견은 22명(29.3%), 심사는 세분화하되 영역 별 점수를 주지 않으며 심사자의 주관적 견해를 서술하여 판정한다는 의견 또한 21명(28.0%)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Table 2>.

다음은 현재 논문심사에 이용되는 5가지 심사서 양식에 관한 평가 결과이다. 먼저 5가지 양식이 상호배타적이고 독립적인지의 물음에 34명(45.3%)가 그렇다, 중간이다 18명(24.0%)으로 답하였다. 5가지 양식이 만족스러운가라는 물음에는 그렇다 26명(34.7%), 중간이다 23명(30.7%)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5가지 이외 다른 양식 개발이 필요한가에는 그렇지 않다 28명(37.3%), 그렇다 16명(21.3%)으로 답하였다. 양식이 서로 많이 중복되는 가라는 질문에는 중간이다 30명(40.0%), 그렇다 20명(26.7%)으로 답하였다. 지나친 세분화는 전반적인 논

<Table 3> Opinions about current used 5 type formats by reviewer

(Total N=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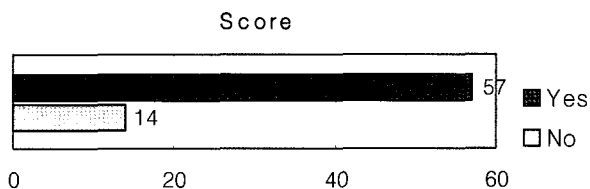
Opinions	Strongly --agree	Agree	Moderate n(percent)	Disagree	Strongly --disagree	Missing
Mutually exclusive & independent	3(4.0)	34(45.3)	18(24.0)	14(18.7)	0(0.0)	6(8.0)
Necessary & satisfied	1(1.3)	26(34.7)	23(30.7)	18(24.0)	1(1.3)	6(8.0)
Other format will be developed	8(10.6)	16(21.3)	13(17.3)	28(37.3)	4(5.3)	6(8.0)
Redundant in each other	4(5.3)	20(26.7)	30(40.0)	15(20.0)	0(0.0)	6(8.0)
Too much specified without help	5(6.6)	21(28.0)	12(16.0)	28(37.3)	2(2.7)	7(9.3)
Deficiencies of unification in objective evaluation	2(2.7)	20(26.7)	14(18.7)	34(45.3)	0(0.0)	5(6.7)
Standard criteria reflecting uniqueness of distinctive nursing	0(0.0)	12(16.0)	34(45.3)	22(29.3)	2(2.7)	5(6.7)
To be cooperated into 2-3 version	9(12.0)	26(34.7)	18(24.0)	14(18.7)	2(2.7)	6(8.0)
To be unified form for simplicity	5(6.7)	13(17.3)	17(22.7)	28(37.3)	6(8.0)	6(8.0)

문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라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 28명(37.3%)으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21명(28%)로 나타났다. 객관적인 심사기준으로서 통일성이 부족한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34명(45.3%), 그렇다 20명(26.7%)으로 답하였다. 다음은 현 심사서 양식이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는 독자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가라는 물음에 중간이다 34명(45.3%), 그렇지 않다 22명(29.3%)로 답하였다. 심사서 양식을 바꾼다면 2-3양식으로서의 재통합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그렇다 26명(34.7%), 매우 그렇다 9명(12.0%), 중간이다 18명(24.0%), 그렇지 않다는 14명(18.7%)로 나타났다. 또한 심사의 통일성과 단순성을 위한 새로운 양식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28명(37.3%), 중간이다 17명(22.7%)의 순서로 답하였다<Table 3>.

객관적 논문 심사를 위한 의견

객관적 논문평가를 위해 총점 100점을 이용한 계산이 타당한가에 대해 57명(76.0%)이 그렇다, 14명(18.7%)은 아니라고 답하였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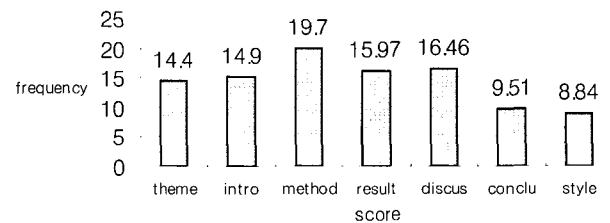
<Figure 1> Opinions about objectiveness in review process (Total N=75)



다음은 논문 전체를 100점 만점으로 가정하였을 때 논문의 각 세부 영역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결과이다. (1) 연구주제 영역은 최소5점 -최대30점의 범위로 최빈값은 10점, 평균점수는 14.40± 6.26점으로 나타났고 (2) 서론(필요성, 및 목적, 문헌고찰 포함)영역은 5-25점의 범위, 최빈값 10점, 평

균은 14.90±4.49점이었다. (3) 연구 방법 영역은 10-35점 범위, 최빈값 20점, 평균 19.70±5.21점이었으며 (4) 연구 결과 영역은 5-30점 범위, 최빈값 20점, 평균은 15.97±5.52점 (5) 논의 부분은 3-30점 범위, 최빈값 20점, 평균 16.46±5.17점 (6) 결론 및 제언 부분은 5-20점 범위, 최빈값 10점, 평균 9.51±3.62점이었다. (7) 투고형식의 적절성 부분은 0-20점 범위, 최빈값 10점, 평균 8.84±3.36점으로 나타났다<Figur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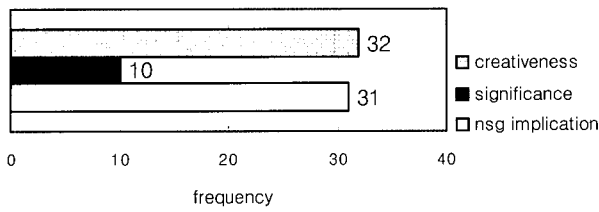
<Figure 2> Mean scores of research evaluation areas (Total N=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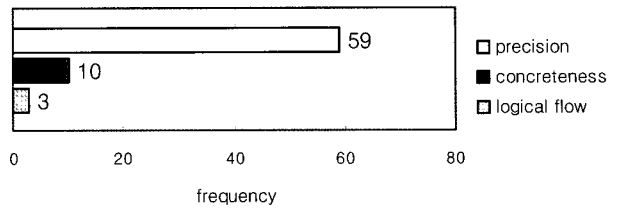
다음은 논문의 영역 별 세부 준거들이 갖는 중요도에 관한 결과이다. 영역 별 각 준거들에 대해 제 1순위로 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주제 영역에서는 독창성 32명(42.7%), 간호학적 의미 또는 유용성 31명(41.3%), 그리고 유의성 10명(13.3%)의 순서였다 (2) 서론 영역에서는 문제제기의 명확성 59명(78.7%), 목적의 구체성 10명(13.3%), 논리적 전개 3명(4.0%)의 순서로 나타났다. (3) 연구방법에서는 도구사용의 신뢰도 타당도 검증 34명(45.3%), 대상자 선정의 적합성(표본수의 근거, 표본 추출방법) 20명(26.7%), 자료 분석 방법의 적절성 16명(21.3%), 자료수집상 윤리성 검토 7명(9.3%)의 순이었다. (4) 연구 결과에서는 연구 문제,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는지가 61명(81.3%), 통계량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12명(16%)이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5) 논의에서는 결과에 근거한 해석 65명(86.7%), 논리적 표현과 주장 6명(8.0%), 선행연구와의 관련성 제시 3명(4.0%)의 순으로 답하였다. (6) 결론 및 제언에서는 적합성 55명(73.3%), 간호실무의 교육적 반영

<Figure 3> Priorities of criteria in research evaluation ar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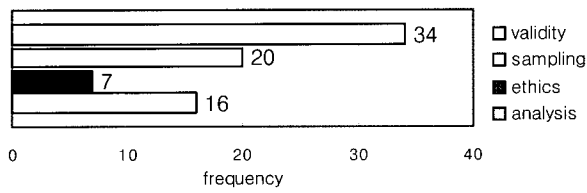
<Figure 3-1> Priorities of criteria in the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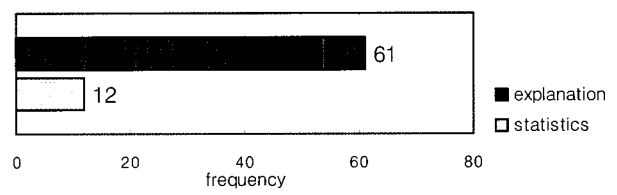
<Figure 3-2> Priorities of criteria in int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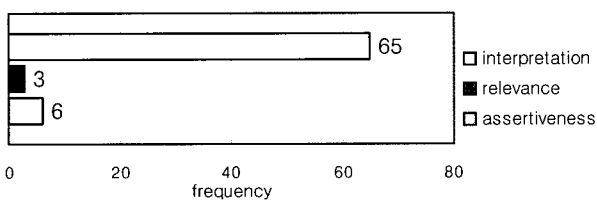
<Figure 3-3> Priorities of criteria in method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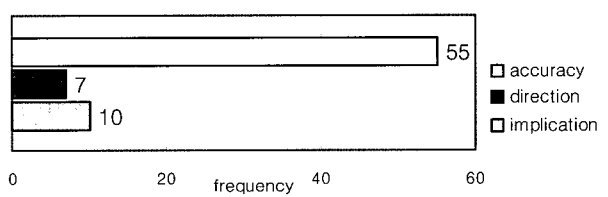
<Figure 3-4> Priorities of criteria in resu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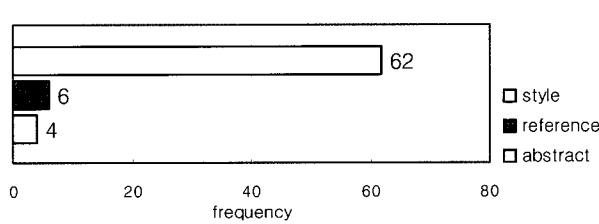
<Figure 3-5> Priorities of criteria in discussion



<Figure 3-6> Priorities of criteria in conclusion



<Figure 3-7> Priorities of criteria in style and structure



10명(13.3%), 추후 연구방향 제시 7명(9.3%)의 순이었으며, 마지막 (7) 투고형식의 적절성에서는 학회지 규정에 부합되는 체계의 적절성이 62명(82.7%), 참고문헌의 적절성 6명(8.05), 영문초록의 적절성 4명(5.3%)의 순으로 답하였다<Figure 3-1, 2, 3, 4, 5,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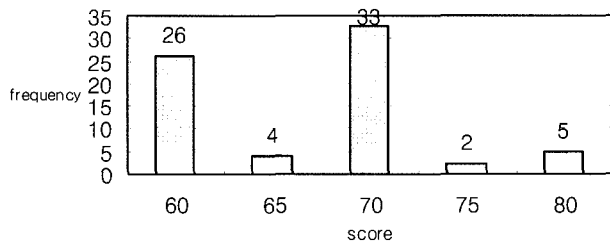
다음은 심사 세부 항목에 대하여 매우 우수하다를 100점으로 보고, 우수하다 90점, 보통이다 80점, 부족하다 70점, 매우 부족하다 60점으로 가정하였을 때 게재 불가 판정을 위한 최소 문항별 평균점수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최소

60점, 최대 80점의 범위, 최빈값은 70점, 평균은 66.86±6.09점으로 나타났다<Figure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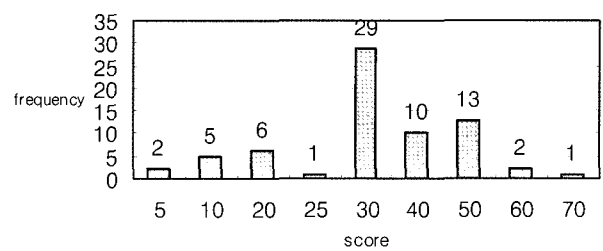
한편, 논문심사의 세부 문항에서 매우 부족하다로 평가받은 문항이 전체의 몇 % 이상일 때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리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질문에는 최소 5%, 최대 70%, 최빈값 30%, 평균 33.55±13.62 퍼센트로 나타났다.

학회지 발전과 논문심사 평가에 관한 제언

<Figure 4> Minimum total scores to be rejected the research paper



<Figure 5> Minimum percent scores in each item to be rejected the research paper



본 학회지가 국제적 학술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국제적 학술지와 대등한 수준의 논문만을 신중히 가려 게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연구 주제, 방법론, 영문 수준, 참고 문헌의 적절성, 표나 통계치의 사소한 형식까지 요구된다고 하였다.

만일 심사서 양식을 바꾼다고 할 때 제안된 의견으로는 체크리스트 70-80%와 주관적 견해 20-30%를 합한 점수로 판정하자는 의견도 도출되었다.

논문 심사 세부영역에서 추가적으로 지적된 사항에는 정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서론 영역에 용어의 정의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측정하고자 하는 이론적 개념과 측정도구의 내용이 다를 때가 종종 있기에 목적과 개념측정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이론적 연계성을 포함시킬 필요가 제시되었다. 또한 최근 전반적인 추세로 문헌고찰이 원고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심사 영역(서론)에서 거론되는 것이 어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논문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선행연구나 관련 연구에 대한 고찰 없이 개념만을 선정하여 단순 분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었다.

한편 투고 형식의 적절성 부분은 세부 평가영역에서 제외하고 일단 형식이 맞지 않을 경우 바로 연구자에게 회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심사위원의 자질에 대한 의견으로는 심사위원들 간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사위원 선정 시 성실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논 의

전체 응답자는 비록 75명이었지만 논문심사 위원들이 다양한 연령과 교수경력을 갖추었고, 본 학회지 뿐 아니라 산하 분과학회지 심사위원들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기에 우리나라 간호학 논문심사위원의 대표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할 현상으로는 본 학회지와 소속 분과학회지 논문심사 위원들 모두에서 종설, 개념 분석, Q 방법론에 대한

논문심사가 매우 드물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간호학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형태가 거의 대다수의 양적 연구와 소수의 질적 연구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짐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다양한 간호학 지식을 독자에게 제공하기에 너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과 현재 대한간호학회지가 사용하고 있는 5가지 논문심사양식의 유용성과 가치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 대한간호학회지는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논문 게재의 유형과 질적 수준에 있어서 타 학술지와 구별되거나 고유의 특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외국의 대표적인 간호학술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The Journal of Advanced Nursing(JAN)은 국제적, 동료평가(peer reviewed), 학술잡지로서 간호와 조산사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연구와 잠재적으로 지식, 실무, 교육, 관리 및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식의 전파를 학술지의 성격으로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JAN 원고는 과학적, 경험적, 이론적 또는 철학적 기반을 갖추어야 하고, 그 접근에 있어서 비판적이고, 의문을 제기해야 하며 학술적이어야 한다. 국제적 잡지로서 JAN은 문화, 패러다임, 건강관리 맥락 내에서 연구와 학문의 다양성을 증진한다. 대부분 제출, 출판된 원고는 간호사와 조산사가 저자이지만 JAN의 목표와 범위에 부합하는 한 제한은 없다. JAN에 게재될 원고의 범위는 아래의 영역을 반영하고 있다, 즉, 간호실무의 이슈와 혁신, 철학적 윤리적 이슈, 간호이론과 개념개발 또는 분석, 간호연구의 방법론적 이슈, 통합적 문헌고찰과 메타 분석, 간호교육의 이슈와 혁신, 그리고 간호와 건강관리와 정책이다 (JAN, 2006). 한편, 미국의 대표적 간호학술지인 Nursing Research는 간호학 지식기반에 공헌하고 질병에 대한 인간반응의 이해를 넓히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완성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보고한다. 연구보고를 통하여 교육적 기능을 완수하고 방법론과 연구디자인을 비평하며, 간호연구와 실무 간의 아이디어를 자극하고 정보를 교환한다. 게재 원고는 지식, 방법론적 가치, 결과의 중요성, 현재 간호수준과의 관련성에 의해 결정된다. 잡지의 영역은 원저, brief report, letter

to the editor 등으로 구분한다(Nursing Research, 2006). 이상의 대표적 국제 간호학술지의 목적, 범위, 기능을 살펴볼 때, 국제적 학술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간호학회지에 요구되는 점은 우리의 특색을 분명히 하고 다양한 형태의 원고 게재, 또는 편집자, 저자 및 독자 간 일 방향적 관계가 아닌 활발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전문적 원고를 출판함에 있어 많은 단계가 관련되는데, 제출된 논문의 동료평가(peer review)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해당 잡지의 준거를 적절히 충족하는지를 확신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Weil, 2004). 95% 이상의 간호학 잡지들, 뉴스레터, 또는 출판물들은 double blinded peer review의 형태를 지닌다(Freda & Kearney, 2005). 간호연구에서도 동료평가는 전문가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간호실무의 최상의 질적 증거를 제공한다고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인접 의학저널에서는 double blinded review가 표준이 아니라 single blinded review(저자의 실명이 심사자에게 노출되는 것)가 표준이다. 다른 영역에서도 double-blinded review가 표준적이지 않다. Bachand와 Sawallis(2003)가 조사한 18개 분야 553개 저널(간호학 제외)을 보면 58%가 double blinded review, 37%가 single blinded review, 5%는 open review를 실시하고 있었다. Double blinded review는 사회사업영역에서 100%, 역사의 93%, 공공행정의 92%, 경영과 회계학의 90%, 문학과 음악의 67%가 해당하였고, single blinded review는 생물학과 화학의 90%, 인류학과 고고학의 69%, 의학의 62%, 심리학의 50%가 차지하였다. Open review의 경우에는 지학과 지구과학의 40%, 생물학의 10%가 해당하였다. 따라서 double blinded review가 표준이어야 한다는 간호사의 관점은 일부 과학에서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Kearney & Freda, 2005). 현시점에서 동료평가는 단지 그 효율성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견 측면에서 의견일치를 보인다(Berger, 2006). 비록 동료평가는 미래에도 지속되었지만 현재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주목할 점은 이미 주도적인 몇 의학저널이 unbinding process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Algase, 2006).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학술지 거의 100%에서 사용하는 blinded peer review 방식은 이미 고전적인 방식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의학은 물론 간호학에서도 평가 형태가 다양화되거나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Kearney와 Freda(2005)은 88명의 간호편집자를 대상으로 동료평가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의 편집자들이 blinding 방식이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보았고 개인적으로나 전문적으로 가장 중요한 동료평가의 요인은 부정적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소수는 open review가 심사과정과 편집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투명성을 증가시키는 잠재적 가치가 있음을 지

적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평가방식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나아가 논문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자와 심사자 모두를 위한 방법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 현재 학회지의 double blinded 동료평가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3인의 동료평가를 새로 도입하여 기존 2인 평가와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그 외의 개선할 점을 확인하는 발전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현재 심사위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주관성과 객관성 모두를 고려하고 있으며, 심사서 양식도 두 가지를 고려한 형식으로 변화하기를 요청하였다. 현재 5가지 심사양식에 대해서는 심사서 형식이 비교적 독립적이라는 견해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개발이나 단일형태로의 통합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사용하는 심사서 양식 체크리스트는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사위원들은 점수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객관적 접근에 다수가 찬성하였는데, 이는 논문 평가에 있어서 주관적 견해 못지않게 측정가능한 객관적 지표를 중요시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객관적 지표의 타당성 확보, 그리고 앞서 지적한 심사논문이 주로 양적, 질적 논문의 형태로 나뉘는 점, 게재판정이나 심사과정에서 주관성과 객관적 평가를 모두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보다 향상된 평가방식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심사보고서의 수정, 보완 및 통합이 필요하다.

Brockopp과 Hastings-Tolsma(2003)는 모든 연구보고서 평가에 고려해야 할 중요 요소들을 평가기준으로 기술하고 이들 요소들은 넓고 방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연구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요소로는 다음의 세 가지 (1) 연구문제, (2) 연구 방법론, (3) 연구결과 발견 및 해석으로 구분하였다. (1) 연구문제로는 ① 연구에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되는지의 개관 ② 문제의 명확성 ③ 간호를 위한 문제의 유의성 ④ 조사의 목적과 중요성 ⑤ 개념적 모델 ⑥ 문제와 관련된 문헌의 진술이 포함되었다. (2) 연구 방법론에는 ① 연구디자인 ② 자료수집환경 ③ 도구의 기술(신뢰타당도) ④ 표본사용이 해당된다. (3) 연구결과 발견 및 해석에는 ① 자료 분석 전략 ② 자료 분석 결과 ③ 연구문제의 분석 ④ 결과의 논의와 해석 ⑤ 간호의 유의성 ⑥ 간호교육, 실무, 및 추가적 연구를 위한 제언이 포함되었다고 하였다. 현재 우리 학회지의 평가기준은 이상의 중요 요소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세부적 논문심사영역에 대한 의견 역시 기존의 보편적 연구평가의 요소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점수를 기준으로 한 논문 평가는 연구결과 방법론, 논의, 결과, 서론, 연구주제, 결론 및 투고양식의 순서로 나타나 이 결과를 새로운 논문 평가서 제작 기준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의견으로는 연구의 독창성, 연구의 명확성, 도구의 타당도, 적절한 결과의 제시, 올바른 해석, 적합한 설명,

투고양식의 체계가 중요한 항목들로 제시되었기에 이들 내용들이 객관적 지표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객관적 기준으로 논문의 점수는 70점 이상, 최하 점수 항목이 전체의 30% 이하 일 때 게재가능이라는 의견도 참고가능한 점이다.

가장 흔한 심사자의 약점으로는 구체성 결여와 초점의 부정확성이 지적되고 있다. 우수한 심사는 원고 내에 있는 결점을 구체적인 지시에 의해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다. 논문 심사자 역할 준비는 기초적인 전문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논문작성과 학위논문 준비를 제외하고 효율적인 쓰기와 비평은 간호사에게 흔히 가르치는 기술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편집자는 실제적으로 심사자를 위한 특별한 준비과정이나 안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Kearney & Freda, 2005). 심사자와 편집자는 지식, 경험, 관점에서 그들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부적절한 조언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Weil, 2004). 이 같은 주장에 대하여 심사위원들의 정기적 워크 샵을 통해 평가방법을 서로 교환하고 인접학회나 타 학문분야의 추세도 확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시대에 뒤 떨어지지 않는 간호학술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간호학이 아닌 다른 종합 학문분야의 어떤 학회는 논문집의 친화력을 높이는 노력을 중요시하기도 한다. 즉, 게재되는 논문 수준을 높이는 한편, 보다 많은 회원이 읽을 수 있고 또 투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심사위원은 합격여부를 가리는 판정관의 차원을 넘어 학회의 고객서비스를 대행하는 마음으로 심사에 임할 때 타 학회지로서의 유출을 막고 인접 학문분야의 논문이 유입되도록 할 수 있다고 하였다(Kim, 1999). 그렇다면 우리 대한 간호학회는 논문 심사과정에서 저자나 심사자 모두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학회는 간호사는 물론 간호와 관련된 인접분야 학자들에게 열려져 있는지, 나아가 우리 학술지의 목표와 범위는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의문을 갖게 된다.

이상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간호학술지로서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논문의 심사과정 전반에 걸친 평가와 분석을 토대로 국제적 학술지로 발전하기 위해 모색해야 할 여러 방향을 제시하면서, 최근의 동료평가 방식이 타학문 분야에서 달라지고 있는 점, 또한 간호학에도 변화가능성이 탐지되는 현상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대한간호학회지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한간호학회지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학술지로서의 특성을 확인하고 국제적 학술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현재 논문심사과정 전반에 걸친 분석과 객관적 논문 평가를 위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시도되었

다. 연구 기간은 2006년 8월 23일부터 9월 30일 까지였고, 대상지는 한국간호과학회, 분과학회 소속 논문심사위원 75명이었다. 연구결과 응답자 논문심사위원 대다수의 의견은 타 학술지와 본 학술지가 차별화 되거나 특성이 제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국제적 학술지로 발전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는 독창성(52.3%), 간호의 우수성(38%)을 제시하였다. 논문 심사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영역에서 기술적인 평가방식(60%)을 선호하였으며, 논문 게재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은 체크리스트와 주관적 평가를 함께하는 의견(84%)이 많았다. 앞으로 심사양식이 바뀐다면 보다 큰 영역에 주관적인 견해를 평가하는 방식(40%)을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심사서 양식에 대해서 새로운 형태나 단일화된 형식은 반대하였고, 논문의 객관적 평가에는 다수인 76%가 찬성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다음 사항을 제언한다.

-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의 목적, 범위, 수준에 대한 합의와 공개적 홍보가 요구된다.
- 다양한 간호학 지식을 전파하고 인접 학문과의 교류를 위한 문호 개방을 고려한다.
- 논문 심사 방식의 다양성 연구와 다양한 게재형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 심사자 간 차이를 줄이고 심사자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수준의 심사자 훈련이 필요하다.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심사서 양식의 발전적 수정과 통합을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Algase, D. L. (2006). Reviewing peer review. *Research and theory for nursing practice: An International Journal*, 20(3), 179-181.
- Bachand, R. G., & Sawallis, P. P. (2003). Accuracy in the identification of scholarly and peer-reviewed journals and the peer-review process across disciplines. *The Serials Librarian*, 45, 39-59.
- Brockopp, D. Y., & Hastings-Tolsma, M. T. (2003). *Fundamentals of nursing research*. Third edition. Jones and Bartlett Publishers
- Freda, M. C., & Kearney, M. (2005). An international survey of nurse editors' roles and practices. *J Nurs Scholarsh*, 37, 87-94.
- Journal of Advanced Nursing. (n.d.) Aims and scope. Retrieved 10/20/06 from <http://www.journalofadvancednursing.com/jps.asp?page=aims>
- Kearney, M. H., & Freda, M. C. (2005). Nurse editors' views on the peer review process. *RINA*, 28, 444-452.
- Kim, J. J. (1999). Criteria of journal review. *Bulletin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36(2), 48-49.



Nursing Research. (2006). Information for authors. *Nur Res*, 55(1),

Weil, J. (2004). Peer review: An essential step in the publishing process. *J Genetic Counseling*, 13(3), 183-187.

## Developmental Direction for Review System of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Kim, Hae Won<sup>1)</sup> · Chung, Myungsill<sup>2)</sup> · Park, Jeong Sook<sup>3)</sup> · Suh, Yeon-Ok<sup>4)</sup> · Suk, Min-Hyun<sup>5)</sup>  
Shin, Hyunsook<sup>6)</sup> · Yang, Jin-Hyang<sup>7)</sup> · Jang, Hee Jung<sup>8)</sup> · Jung, Myun-Sook<sup>9)</sup>

1)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Kwandong University, 2) College of Nursing, Sungsin University  
3)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4)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5)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Pocheon CHA University, 6) College of Medicine, University of Ulsan  
7)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8) Division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9) College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current characteristics of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nd to explore a way to elevate it to an international level and to critique the overall review process so as to delineate the advanced, objective paper appraisal in this journal. **Methods:** Data was collected using self administered questionnaires to 75 journal reviewers belonging to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 and its division academy of nursing from August 15th to September 30th, 2006. **Results:** The majority of reviewers pointed out a lack of discrimination betwee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nd other journals. Among the main answers of reviewers, Creativeness(52.3%) and excellence of nursing(38%) will be critical factors to develop in order to elevate to an the journal to an international level. In specific evaluation areas, reviewers preferred a subjective critique method(60%), and the condition of the decision making process regarding paper acceptance as a combination of checklist and subjective evaluation(84%). Subjective evaluation opinions with major categories will occur in the next revised evaluation format. 76% of reviewers agreed with the current objective evaluation form. **Conclusions:** The journal review process should be evaluated on a regular basis to elevate the journal level and a mutual agreement of the journal's scope, range, and purpose will be necessary. As a recommendation, an attempt at various approaches in journal reviews and reviewer training should be made.

**Key words :** Academic, Evaluation, Review, Korean Academy of Nursing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Hae Won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Kwandong University  
522 naegog-dong, Gangreung, Kangwondo 210-701, Korea  
Tel: 82-33-649-7613 Fax: 82-33-649-7620 E mail: hwkim@kd.ac.kr